

제7발표논문(번역문)

지역단위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과제

- 경기 양평군 사례를 중심으로 -

김 완 배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I. 머리말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선호의 증대, 지속가능하며 환경친화적 농업생산에 대한 인식 확산 등 수요와 공급 측면 모두의 변화에 힘입어 친환경농업의 비중은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1976년 「정농회(正農會)」의 창립으로 태동하기 시작한 우리의 환경농업은 1978년 「한국 환경농업연구회」(현 「한국유기농업협회」), 1986년 「한국자연농업중앙회」(현 「한국자연농업협회」) 창립으로 이어졌다. 소비자 측면에서는 산업사회의 환경파괴와 밥상오염으로부터 소비자를 구하고 「도농생활공동체」를 실천하기 위한 운동의 일환으로 1989년 「한살림모임」이 출발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친환경농업은 9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저항에 직면하였다. 해방이후 수십년간 지속되어 온 식량증산이라는 기조는 너무나도 높은 벽이었다. 하지만 환경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의 확산, 양보다는 품질을 강조하는 것이 우리 농업 살길의 하나라는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그 동안 친환경농업 확산을 가로막던 장애요인을 넘어설 수 있게 되었다. 이 같은 분위기의 반전 속에서 1993년 유기농산물 품질인증제가 도입되었으며, 1994년 농림부에 「환경농업과」가 신설되었고, 1997년에는 「환경농업육성법」이 제정되었다.

그다지 길지 않은 역사 속에서 다양한 저항에 부딪치며 성장해 온 탓에 우리의 환경농업은 뜻을 같이 하는 소규모 농민조직이 지역적으로 산재해 있는 형태가 주종을 이루어왔다. 최근 지역(군)단위로 친환경농업을 추진하는 유형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중 가장 성공적이라고 평가되는 경기도 양평군 사례를 분석코자함이 본 고의 주요 목적이다.

먼저 양평군 친환경농업의 추진배경과 추진과정 및 주요내용을 살펴본 다음 현재의 상황을 점검하고, 군단위로 추진해 온 과정에서 직면해 온 다양한 장애요인의 극복방법을 포함한 평가를 시도해 보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앞에서의 분석을 토대로 양평군 환경농업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한 부문별 과제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II. 양평군의 개황 및 친환경농업 추진배경

가. 양평군의 개황

1908년 당시 양근군과 지평군을 합병하여 탄생한 양평군은 경기도 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은 가평군, 서는 남양주시와 북한강을 경계로 하고, 동은 강원도에 접하며, 남은 여주군과 경계하고 있다. 북부일대는 산악에 연하였고 중앙북부에는 용문산이 솟아 있어 농경지 비중은 군 전체면적의 16%에 불과하며, 동부 및 남한강 유역에 연한 부분에 평야가 약간 있으나 비옥한 농경지는 최소한 편이다. 서울과의 거리가 54km로 가까운 편이며 특히 최근 양평국도가 팔당대교를 거쳐 서울시 올림픽대로와 연결됨으로써 양평읍에서 서울시의 중심부라 할 수 있는 여의도까지의 소요시간이 1시간 이내로 가능하다.

다른 한편 양평군의 전체면적 878.3km² 모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인구집중 유발 억제지역인 자연보전권역에 속한다. 또한 전체면적의 70%인 614.3km²는 환경정책기본법상 특별대책지역 I, II 권역으로, 3%인 25.7km²는 수도법상 상수원보호구역으로, 5%는 한강수계법상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등 군 전체면적의 78% 정도가 상수원관리지역으로 되어있다.

양평군은 행정구역상 1개읍, 11개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세대수 29,000가구에 총 인구는 83,000명 수준이며, 농가는 9,900가구로 전체가구의 34% 수준이다. 전체 경지면적은 10,456ha로 이중 논은 전체의 59%인 6,142ha이며 밭은 41%인 4,314ha를 차지하고 있다.

1998년 기준으로 양평군의 지역내총생산액(GRDP)은 4,210억으로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30위에 속하는 낮은 수준이다. 각 산업별 구성비는 1995년 기준으로 1차산업 28.3%, 2차산업 3.4%, 3차산업 68.4%로 3차산업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3차산업은 남·북한강 및 관광지 주변에 증가하고 있는 요식업소 및 숙박업소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양평군에는 천연기념물 제30호인 용문산 은행나무가 있는 용문산 국민관광지를 비롯하여 유명산, 중미산, 소구니산 등 울창한 숲을 자랑하는 산림자원, 북한강과 남한강 주변의 수려한 경관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양평군의 수려한 자연경관 및 서울과의 근접성은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에게 유인책으로 작용하여, 양평미술인협회 회원 수만 해도 200명 수준이 되는 등 인구대비 예술인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알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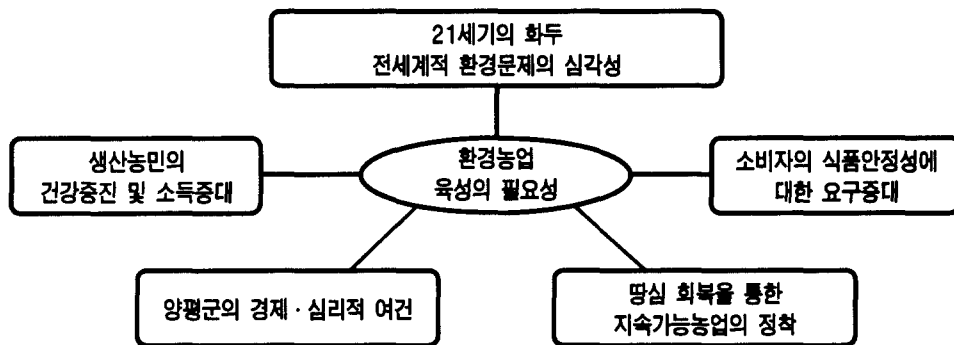
나. 친환경농업의 추진배경

양평군이 친환경농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게 된 배경은 크게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외부적 요인으로는 우선 WTO체제 출범과 더불어 우리 농업의 품질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본격화된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들 수 있다. 친환경농업 육성은 품질경쟁력 제고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친환경시대에 걸맞는 지속발전가능한 산업이라는 인식, 특히 식품의 안전성 향상을 희망하는 소비자의 욕구가 가미됨으로써 더욱 힘이 실리게 되었다.

또한 2천만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이 되고 있는 팔당호의 수질 개선 요구는 팔당호 주변 지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양평군으로 하여금 개발방향에 있어 선택의 여지를 줄힐 수밖에 없었다. 남한강과 북한강으로 둘러싸인 양평군은 군 전체가 자연보전권역에 속해 1만평 정도의 공단조성도 불가능한 형편이다. 동시에 군 전체면적의 70%가 상수원 특별대책 I·II 권역에 포함되어 있어 우사 450㎡ 및 둔사 500㎡ 이상은 신규 진입이 금지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친환경농업 육성 이외의 대안은 찾기 어려웠다.

내부적 요인으로는 양평군내 농가들의 친환경농업에 대한 경험과 이를 통한 자신감, 군수를 중심으로 한 지도자계층의 친환경농업에 대한 믿음, 열정 및 강력한 리더십을 들 수 있다. 양평군의 친환경농업 육성이 본격화되기 이전부터 양서면 양수리를 거점으로 한 「팔당상수원유기농본부」가 활동하고 있었다.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생산 및 유통체계가 뿌리를 내리게 되고 이들의 경험과 자신감이 양평군내 타 지역 농민에게도 친환경농업의 성공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식시키게 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군수를 포함한 각계 각층 지도자 그룹의 친환경농업에 대한 믿음과 열정은 「양평환경농업-21」위원회를 발족시켰다. 민간기구인 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계획수립 및 다양한 의견 수렴과정에 군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더해짐으로써 양평군 친환경농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1〉 양평군 환경농업 육성의 필요성

Ⅲ. 추진과정 및 현주소

가. 추진과정

양평군에 있어 본격적인 친환경농업 추진은 1998년 4월 「양평환경농업-21」위원회 발족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 싶다. 1997년 12월 「제2의 농업부흥운동」이 선언되었으나 이를 친환경농업 선포로 보기에 다소 미흡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듬해 4월 10일 군인대표자 62명이 모여 「양평환경농업-21」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는바 이를 기점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같은 해 5월 농림부 이동장관실이 열린 자리에서 전국 최초의 군단위 환경농업지

역을 선포하였다. 이후 연말까지 구체적인 추진방향 설정 및 위원회의 조직 정비 등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또한 군 전체의 친환경농업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1998년 12월 서울대 농업개발 연구소에 의뢰하였다. 필자는 연구용역의 연구책임자로서 양평군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동 보고서에서는 양평군 농업을 둘러싼 군내·외 여건 변화를 기초로 SWOT(Strength, Weakness, Opportunity, Threat)분석을 한 다음 양평군 환경농업의 추진방향, 부분별 추진과제 및 전략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분야별 추진내용은 생산 및 경영부문, 유통 및 가공부문 뿐만 아니라 산림 및 수산부문, 교육 및 지도부문, 문화 및 관광부문, 기타 부문 등으로 세분화하여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도록 하였다.

1999년 전반기에는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었던 관계로 벼재배를 위한 오리농법 시연회 외에는 구체적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다.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BMW(Bio Mineral Water)농법 도입을 위한 일본 현지 연수 및 BMW순환농업시스템 설치 사업이 시작되었다. 동시에 친환경농업과 문화를 연결하는 사업으로서 메뚜기잡기 행사, 허수아비축제 등이 시작되었다. 10월에는 군비 지원아래 588ha에 이르는 그린농업단지가 조성되었다. 이는 겨울철 노는 땅에 호밀 등 월동작물을 재배하여 푸른들을 조성, 생기 넘치는 농촌 경관을 조성함은 물론 재배작물은 사료 및 녹비 등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영비 절감과 지력증진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바탕을 마련하는 목적으로 추진된 것이다. 11월에는 오리농법의 확산을 위해 99년산 오리농쌀 1,744가마를 구매하였다. 12월에는 친환경농업 선도농가 474명 및 12개 선도마을육성사업 대상자 227명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2000년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시작되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대한 유기질비료 공급을 시작으로 키토산(Chitosan)농법확산을 위한 본격적인 교육이 군 단위는 물론 읍·면별로 이루어졌으며 군의 예산지원아래 키토산의 무료공급이 실시되었다. 또한 오리, 우렁이 및 이온수농법의 기반조성을 위해 논오리, 왕우렁이, 산화전해 이온수 청수기 등이 공급되었다. BMW시설 완공에 따라 생물활성수를 공급하기 시작하였음은 물론 생물활성수와 키토산의 효능검정을 위한 시험포를 35개소 설치하였다. 지력증진을 위한 객토사업이 전개되었고 2000년산 오리농쌀 10,337가마에 대한 구매도 이루어졌다. 친환경농업에 대한 인식의 확산, 간접적인 지원 등을 위해「3가지 안하기 및 3가지 하기 운동」이 군지역 전체에 걸쳐 추진되었다. 3가지 안하기 운동은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를 사용 안하는 것이며, 3가지 하기 운동은 메뚜기 및 반딧불이 서식지, 허수아비 들판 만들기를 의미한다. 동시에 「양평환경농업-21」상징마크 4개류 25군 40개 세목에 대한 상표등록을 완료하였다. 1999년에 시작된 그린농업단지를 850ha로 확대하였고 12개소에 이르는 친환경농업 특산단지가 조성되었다. 동년 7월에는 친환경농업인연합회가 출범하였고, 연말에 이르러서는 친환경농업 선도자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환경농업대학이 개설되었다.

2001년에는 2000년에 시행된 사업들을 보다 확대 지원함과 동시에 몇 가지 신규사업이 추가되었다. 유기질비료, 키토산, 오리, 왕우렁이 등 친환경농업확산을 위한 지원이 보다 확대되었

다. 신규사업으로는 잡곡류 생산단지의 조성, 제조제 사용억제를 위한 예취기의 공급, 친환경 농업 파수작목반에 대한 지원 등이 이루어졌다.

나. 현주소

1997년 말 기준으로 양평군의 친환경농업 농가수는 유기농가 28호, 무농약농가 62호, 저농약 농가 328호 등 모두 418 농가로 전체 농가수의 4.4% 수준이었으며, 재배면적 기준으로는 친환경농업 면적은 전체 경지면적의 1.8% 수준에 불과하였다.

〈표 1〉 친환경농업을 위한 연대별 주요 추진내용(1997~2001)

구분	주요 추진내용
1997. 12	제2의 농업부흥운동 선언
1998. 4	「양평환경농업-21」창립총회(62명)
5	농림부 이동장관실 운영시 전국 최초로 환경농업지역 선포
12	「양평환경농업-21」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발주
1999. 6	논오리 방사 행사
8	제조제 사용억제 홍보 포스터 및 플랭카드
9	BMW순환농업시스템 착공
9	메뚜기잡기 행사 및 허수아비축제
10	그린농업단지 조성(588ha)
11	일본의 BMW시설 현지 연수, 99년산 오리농산물 구매(1,744가마)
12	친환경농업 선도농가 및 마을 육성사업 대상자 교육
2000. 1	ISO14001 환경농업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2~3	유기질비료 공급(190,500포), 키토산 농법 교육 3가지 안하기, 3가지 하기 운동 추진
3~10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기반조성사업(키토산·논오리·왕우렁이 공급 등) 추진
4	「양평환경농업-21」상징마크 상표등록 완료(4개류 25군 40개 세목) BMW생물활성수 및 키토산 시범포 설치(35개소)
6	친환경농업인 읍·면협의회 및 군 연합회 결성(712명)
7	양평군 친환경농업인연합회 발족 및 BMW플랜트 준공
8	산화전해이온수 및 이온청수기 공급(각 36대)
10	그린농업단지 조성(850ha)
11	지력증진을 위한 개토사업(120ha), 친환경농업 특산단지 조성(12개소), 환경농업대학 개설, 2000년산 오리농산물 구매(10,337가마)
12	살균수기공급(36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순회교육(1,750명)
2001. 2~3	선도농가 및 마을에 대한 유기질비료 및 키토산 공급
4	잡곡류 생산단지 조성(219.2ha)
5	오리 및 왕우렁이 공급(321ha), 예취기 공급(1,020대)
6	친환경농업 파수작반 지원, BMW활성수 이용한 유기질비료 공급(180톤), 친환경농업인연합회 해외연수

자료: 양평군

친환경농업이 확산되면서 1999년에는 전체 농가수의 27.3%인 2,569 농가 및 전체 경지면적의 19.8%인 2,057ha가 친환경농업으로 전환되었다. 이 같은 증가추세는 계속되어 2001년에 이르러서는 전체 농가수의 49.7%인 4,674농가 및 전체 경지면적의 29.6%인 2,989ha가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 친환경농업 유형별 농가수 및 면적의 변화 추이(1997~2001)

(단위: 호, ha, %)

구 분		유 기	무농약	저농약	계
1997	농가호수	28 (6.7)	62 (14.8)	328 (78.5)	418 (100.0)
	면 적	16.2 (8.4)	34.1 (17.8)	141.8 (73.8)	192.1 (100.0)
1998	농가호수	28 (6.2)	97 (21.4)	328 (72.4)	453 (100.0)
	면 적	16.2 (7.1)	69.1 (30.4)	141.8 (62.4)	227.1 (100.0)
1999	농가호수	40 (1.6)	274 (10.7)	2,255 (87.8)	2,569 (100.0)
	면 적	22.4 (1.1)	121.4 (5.9)	1,913.6 (93.0)	2,057.4 (100.0)
2000	농가호수	474 (11.5)	1,279 (31.1)	2,360 (57.4)	4,113 (100.0)
	면 적	104.4 (4.0)	397.8 (15.4)	2,078 (80.5)	2,580.2 (100.0)
2001 ¹⁾	농가호수	537 (11.5)	1,215 (26.0)	2,922 (62.5)	4,674 (100.0)
	면 적	126.5 (4.2)	695.6 (23.3)	2,167.3 (72.5)	2,989.4 (100.0)
연평균 증가율	농가호수	285.3	149.8	154.2	137.0
	면 적	106.3	120.1	315.4	216.4

주 1): 2001년은 9월말 기준이며 다른 연도는 12월말 기준임.

주 2): ()속은 비율임. 자료: 양평군 산업진흥과.

친환경농업 유형중 유기농가수는 1997년 28농가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1999년에는 40호로 증가하였고 2001년에는 537농가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1년 현재 호당 재배 면적은 유기농가 0.24ha, 무농약농가 0.57ha, 저농약농가 0.74ha로 유기농가 호당 면적은 저농약 농가의 1/3 수준에 그치는 상당한 영세한 규모임을 알 수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여주·양평 출장소 보고자료에 의하면 2000년 말 현재 친환경농업 전체 농가의 11.6%인 477농가가 품질인증 및 표시신고를 획득한 상태라고 한다. 이중 유기농가는 1.9%인 9농가, 무농약 농가는 64.8%인 309농가, 저농약농가는 33.3%인 159농가로 나타나고 있다. 생산부류별로는 전체 농가의 74.6%인 356농가가 미곡을 생산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채소류 92농가, 과실류 16농가, 특용작물 10농가, 서류 3농가의 순을 보이고 있다. 미곡생산농가 중에서 무농약재배가 74.2%로 가장 많고, 채소류의 경우에는 저농약재배를 하고 있는 반면

서류의 경우는 모두 유기 및 무농약재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의 판매는 양평읍내에 새로 개장한 「해오름」 직판장을 포함한 직거래가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도매시장 출하 13%, 농협출하 11%, 새농²⁾출하 11%의 순을 보이고 있다.

IV. 평가 및 향후 과제

가. 평 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평군의 경우 친환경농업의 확산 속도가 그 어느 지역보다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추진과정에 있어 다양한 장애요인에 봉착하였고 그때마다 군 나뉠대로 극복하기도 하였으나 아직까지 일부 장애요인이 상존해 있는 실정이다.

역시 가장 큰 장애요인은 농민들의 친환경농업에 대한 의식이었다. 그 동안의 증산 일변도 정책은 농민들로 하여금 다투입(多投入)농업, 다시 말해서 화학비료와 농약을 많이 사용하는 농사에 익숙케 하였다. 더욱이 농촌노동력이 부족하고 노령화된 상황에서 화학비료와 제초제를 사용하는 대신 퇴비사용과 수작업에 의한 제초를 권하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특히 노인계층의 반발이 상대적으로 거세였기 때문에 이들의 의식전환을 위한 친환경농업에 대한 의식교육 및 주민들의 자율적인 설득노력 등과 동시에 다소간의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노력(예: 키토산, 유기질비료 등 환경농자재의 제공 등)이 이루어졌다. 이 같은 노력과 더불어 친환경농업의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현재는 반발 분위기가 거의 대부분 가라앉은 반면 친환경농업 실천 분위기가 지배적인 상태에 있다.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은 토심을 되살리기 위한 투자 등 상당한 기간에 걸친 노력과 투자가 요구된다. 자작농의 경우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결정만으로 이 같은 투자가 가능할 수 있으나 임차농의 경우에는 희망한다 할지라도 임차기간 및 조건은 물론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속하기 때문에 환경농업으로의 변신이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수도권지역은 부채지주 등에 의한 농지소유 비중이 높아 친환경농업의 확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양평군 역시 예외일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제약조건을 지역단위에서 해소시키기에는 한계가 있고 중앙정부에 의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데 아직까지 해결 전망은 보이지 않고 있다.

농업생산의 최종성과는 판매에 달려있고 친환경농업 역시 예외는 아니다.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선호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수요와 공급간의 불균형문제는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환경농산물의 수요와 공급을 이어주는 유통체계가 미흡한 점이 친환경농업 확산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양평군의 경우 다행하게도 기존의 「팔당상수원유기농본부」가 시행착오를 통해 축적시켜온 유통에 대한 경험과 자체 유통망이 있어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양평군은

2) 팔당상수원 유기농 본부가 설립한 판매전문회사이며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내에 위치하고 있음.

서울이라는 대규모 소비지에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빼어난 경관을 갖춘 관광지로서의 유리성 때문에 환경농산물의 직거래 등이 상대적으로 쉬운 장점이 있다. 이에 더하여 군 행정조직 및 농협의 홍보 및 소비처 개발 등에 대한 노력이 추가됨으로써 양평군의 경우 유통문제가 아직까지는 걸림돌이 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미곡이 주종을 이루는 환경농산물 생산에서 점차 저장성이 낮은 채소류·과실류의 비중이 증대하고 있어 신선도 유지를 위한 제반시설 및 이에 적합한 유통채널의 개발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유통문제가 친환경농업 확산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기존의 농업생산방식으로부터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은 이에 걸맞는 생산기반의 조성이 요청된다. 특히 새로운 환경농자재의 개발 및 효능검증, 환경친화적인 병충해 예방 및 방제 기술의 개발, 토양 및 환경농산물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검증 기술, 환경농산물의 신선도 유지를 위한 다양한 시설 및 기술 등의 개발 및 보급이 요구된다. 하지만 군단위 지방자치단체의 대부분은 재정자립도가 낮아 이 같은 생산기반과 관련된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양평군은 팔당상수원 이용자에게 부과되는 물이용 부담금 이른바 「물세」의 일부를 할당받아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투입할 수 있어 타 지역에 비해서는 사정이 나은 편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세」사용 시 지나친 규제로 인해 탄력적인 재정지출이 불가능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집행에 장애가 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 생산기반조성을 자체 능력만으로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다양한 장애요인을 극복하면서 현 수준의 친환경농업을 이루기까지의 1등 공신은 군수를 중심으로 한 지도자계층의 친환경농업에 대한 믿음과 강력한 리더십이었다고 판단된다. 4년이라는 별로 길지 않은 기간동안 농약의 사용량은 평균 46.2%가, 화학비료의 사용은 평균 21.8%가 감소된 반면 유기질비료의 사용량은 144%정도가 증가하였다.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수가 418호에서 4,674호로 증대되었고, 축산분뇨를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순환농업이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린 상태로 보인다. 그 결과 소비자에 대한 안전한 농산물 공급은 물론 팔당호 수질개선 및 자연생태계 보전 등에 있어 기여의 폭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향후 과제

양평군 친환경농업의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한 과제를 생산, 경영부문, 유통·가공부문, 산림부문, 교육·지도부문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생산 및 경영 부문

현재 양평축분공장은 효율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생산되는 유기질비료의 양은 양평군 전체를 환경농업화할 때 필요로 하는 유기질비료 총량의 32~40%에 불과한 수준이다. 따라서 기존공장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예: 값비싼 톱밥 대신 팽연 왕겨 사용 등)이 마련되어야 함과 동시에 신규 공장을 축분 조달이 용이한 지역에 건설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인이 경기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현재 양평군이 재배하고 있는 작목은 지역 농업자원의 최적이용에 못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평군 농업의 총부가가치를 보다 제고시킴은 물론 친환경농업 작목의 다양한 공급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작목의 조정, 지역별 적정배치, 작부체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유인책 및 지원이 요청된다(표 3).

친환경농업시 병해는 다양한 환경농자재 사용으로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해지고 있으나 총해의 예방은 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천적의 개발 이용, 페르몬유인법, 불임해충방출법 등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같은 방법을 지방자치단체의 힘만으로 해결하기에는 너무나도 벽찬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및 지원에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표 3〉 양평군의 생산감축 및 확대품목

생산감축품목	생산확대품목
쌀, 보리, 옥수수, 감자, 고구마, 무, 배추, 참외, 참깨, 땅콩, 시금치(시설), 배추(시설), 사과, 복숭아	과, 수박, 마늘, 담배, 인삼, 고추(노지), 고추(시설), 오이(시설), 참외(시설), 수박(시설), 무(시설), 토마토(시설), 버섯, 화훼, 약용작물, 배, 포도, 한우, 낙농, 돼지, 산란계, 육계

자료 : 김완배 외, 1997.

2) 유통 및 가공 부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어 대규모 물량을 신속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산지물류센타 건설이 시급히 요청된다. 동시에 친환경농산물이라는 고품질 농산물이 최종소비자에 이르기까지 고품질로 유지될 수 있도록 수확방법, 수확용기, 예냉, 선별, 포장, 저온저장, 수송방법 및 수단 등 수확 후 관리기술의 개선이 요구된다. 특히 신선도 유지를 위해 예냉 및 저온저장시설, 에틸렌가스 제거시설, 통기구를 갖춘 포장재, 저온수송차량 등을 빠른 시일 내에 갖추도록 해야 한다. 예냉시설의 경우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고정식보다는 이동식 예냉시설 도입이 요청된다. 또한 유통채널을 현행 보다 다원화해 가는 노력이 요구되는데 이를 위해 「양평환경농업-21」위원회에 전문능력을 갖춘 유통전담 직원의 채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양평군 환경농산물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통한 소비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에 의한 품질인증제 참여비율을 높이는 노력이 이루어져야함은 물론 양평군 자체의 인증도입 나아가 리콜제도 도입이 요청된다. 지자체에 의한 품질인증은 일본의 오카야마현이나 미야자키현의 제도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상품성이 낮은 환경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관내 가공공장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군이 지정하는 형태의 친환경농산물 전문식당 도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3) 산림 부문

양평군의 65,000ha에 이르는 산림 중 국·군유림은 25,000ha 수준인데 이를 민간부문에 개방하여 「용문산 더덕」과 같이 산림보전과 소득창출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경제림을 유실수 등의 경제림으로 수종전환함으로써 소득증대를 가져올 수 있음은 물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톱밥을 유기질비료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양평군 일부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토종꿀 및 버섯 생산을 보다 확대하여 친환경농산물의 다양성을 증대시키고 동시에 다른 농산물과의 혼합 가공품개발을 촉진시키는 것이 요청된다.

4) 교육 및 지도 부문

「양평환경농업-21」위원회의 조직 및 역할을 보다 강화하여 명실공히 양평군 친환경농업을 주도하는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문지식을 갖춘 상근 직원의 보강이 시급히 요청된다. 환경농업대학의 기능을 보다 극대화시키기 위해 좀 더 정형화되고 내실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육조직의 보강이 필요하다. 농업기술센터의 직원수 증원 및 전문성 제고를 통해 생산현장에서 애로사항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줄 수 있는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또한 다양한 환경농자재(활인산, 키토산, 목초액, 천혜녹즙, 미생물제재 등)의 정확한 효능 및 사용법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이를 지자체 수준에서 해결하기에는 어려우므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청된다.

V. 맺음말

산재해 있는 소규모 농민조직에 의한 친환경농업 형태보다는 지역단위의 친환경농업 육성이 규모화의 이점으로 인해 보다 효율적임은 물론 환경보전효과 역시 우월하므로 앞으로 보다 강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같은 사례로서 양평군의 경우를 살펴보았는데 4년이라는 짧은 역사에 비해 상당한 성과와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양평군은 친환경농업을 추진하기에 유리한 점만 갖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며 동시에 다양한 장애요인에 맞서 이를 나뉠대로 극복하여 왔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성공적인 사례로서 평가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양평군 지도자계층의 친환경농업에 대한 믿음, 열정, 및 강한 리더쉽과 이를 믿고 따라준 군민 모두의 노력인 것으로 생각된다.

아직까지 상존하고 있는 장애요인,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능히 헤쳐나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지만,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이루기 힘든 영역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중앙정부의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역할, 세심한 배려가 어느 때 보다도 요청된다 하겠다. 중앙정부의 분발을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김완배 외, 「양평환경농업-21」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서울대 농업개발연구소, 1999. 12.
- _____, 21세기 경기농업 정책을 위한 계량모형 개발, 경기개발연구원, 1997.
- 농림부, 「환경농업육성계획(2000-2004)」, 1999. 12.
- 농촌진흥청, 유기·자연농법 및 사용자재의 특성, 1999. 3.
- 농협중앙회 조사부, 환경농업의 현황과 발전방향, 1998. 5.
- 농협중앙회 양평군지부, 지역농업종합개발계획, 1995.
- 양평군, 「양평환경농업-21」 추진 자료집, 2001.
- _____, 2001년도 군정현황, 2001.
- _____, 친환경농업 선도농가 및 마을 교육 자료, 2001.
- _____, 팔당상수원 유기농업 운동본부, 환경농업교육자료집, 1999.

〈부록〉 2001년도 「양평환경농업-21」 주요사업 내용

■ 2001년 양평환경농업-21 추진예산

- 총예산액 : 31,802백만원
- 일반회계 : 21.4%

■ 양평환경농업-21 읍·면 시범사업

- 사업량 : 12개소
- 위치 : 12개소 (읍면별 1개소)
- 지원액 : 1,200백만원(군비)
- 주요내용 : 상수원 수질오염 저감을 위해 저농약, 저화학비료를 사용하는 환경농산물 생산 기반시설을 군비로 지원 친환경농업실천 유도 및 농가소득증대 도모
- 읍면별 시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평읍 : 수막재배시설 - 강하면 : 표고버섯 재배시설 - 옥천면 : 영지버섯 재배시설 - 단월면 : 시설채소의 6개사업 - 양동면 : 풋고추단지 조성사업 - 용문면 : 유기질발효퇴비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상면 : 표고버섯 재배시설 - 양서면 : 표고버섯 자목구입 - 서종면 : 표고버섯 재배시설 - 청운면 : 저온저장고외 5개사업 - 지제면 : 비닐하우스 설치사업 - 개군면 : 오리농업단지조성
---	--

■ 유기질비료 공급

- 공급시기 : 2001. 2월
- 공 급 량 : 200,000포(4,000톤)
- 사 업 비 : 500,000천원(포당 2,500원)
 - 보 조 : 300,000(60%)
 - 자 담 : 200,000(40%)
- 공급대상 : 친환경농업 선도농가 및 마을(1,355농가)
- 목 적 : 친환경농업 실천유도 및 땅심 증대로 화학비료 사용억제

■ 친환경농업 선도농가(마을) 육성사업 대상농가 교육

- 교육일시 : 2001. 2~3월
- 교육장소 : 읍·면 회의실
- 교육방법 : 순회교육
- 교육대상 : 친환경농업 선도농가(마을) 대상농가
- 교육인원 : 1,750명
- 교육내용 : 친환경농업 실천교육

■ 축분비료공장 비료포장재 지원

- 지원시기 : 2001. 4월
- 지 원 량 : 450천매
- 지원대상 : 양평축협 축분퇴비유통센터
- 사 업 비 : 82,500천원(균비)

■ 양평환경농업-21 민·관합동 교육

- 교육일시 : 2001. 4. 3~4. 4(1박2일)
- 교육장소 : 농협 안성교육원
- 교육방법 : 위탁 합숙교육
- 교육인원 : 238명
- 교육내용 : 친환경농업의 중요성 및 발전방향

■ 친환경농업 집콕류 재배단지 조성

- 사 업 량 : 12개소
- 농 가 수 : 1,832호
- 재배면적 : 219.2ha

- 재배작목 : 콩, 팥, 녹두, 수수, 조, 메밀 등

■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키토산 공급

- 공급일시 : 2001. 3월
- 공급품명 : 수용성 영키토 100
- 공급대상 : 친환경농업 선도농가 및 마을
- 공 급 량 : 1,355개
- 소요예산액 : 94,850천원

■ 3가지 안하기, 3가지 하기 운동 추진

- 3가지 안하기(3Taboo : 사용하지 않는다, 금지하다)
 - 농약사용 안하기
 - 제초제사용 안하기
 - 화학비료사용 안하기
- 3가지 하기(3Live : 살아있다, 그대로 있다)
 - 메뚜기 서식지 만들기
 - 반딧불이 서식지 만들기
 - 허수아비들판 만들기
- 추진사항
 - 홍보 현수막 제작설치
 - 255마을 담당공무원 일제출장 홍보
 - 인터넷 및 유선방송 홍보

■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오리 및 왕우렁이 공급

- 공급시기 : 2001. 5월 ~ 6월
- 공급면적 및 수량
 - 오리농법 : 273ha/81,900수(572농가)
 - 왕우렁이농법 : 48ha/2,160kg(140농가)
- 지 원 액 : 179,000천원
 - 오리농법 148,000천원, 왕우렁이농법 31,000천원

■ 제초제 사용억제 예취기 구입지원

- 공급시기 : 2001. 5월
- 공 급 량 : 1,020대

- 지원액 : 153,000천원
- 보조비율 : 보조 50%, 자담 50%
- 사업내용 : 제초제 사용억제 예취기 구입

■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대상 선정

- 사업대상 : 89개조직/1,856농가
- 사업량 : 1,597.2ha
- 사업비 : 837,000천원
- 사업내용 :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소득감소를 보전하여 친환경농업육성 및 안전한 농산물 생산장려

■ 친환경농업 선도농가 및 마을 홍보표찰 제작 설치

- 제작수량 : 438개
 - 선도농가용 : 429개
 - 선도마을용 : 9개
- 설치기간 : 2001. 5. 14 ~ 5. 31
- 설치장소
 - 선도농가 : 선도농가 대문(현관)
 - 선도마을 : 선도마을 입구(마을회관)
- 소요예산 : 9,640천원

■ 축산분뇨수분분조절제 지원

- 공급시기 : 년중
- 공급량 : 5,194m³(371차/5톤)
- 지원액 : 150,000천원
- 보조비율 : 보조 50%, 자담 50%
- 사업내용 : 축산농가 톱밥 지원

■ 친환경농업 과수작목반 지원

- 사업대상 : 양평군 키토산농법 과수작목반(27농가)
- 대상면적 : 31.4ha(사과, 배)
- 사업비 : 123,760천원(균비 72,060천원, 자담 51,700천원)
- 사업내용 : 키토산, 유기질비료, 목초액, 퇴적장

■ 친환경농업 선도농가 및 마을 육성사업 지원

- 대상인원 : 1,355농가(선도농가 932, 선도마을 423)
- 사업비 : 304,900천원
 - 선도농가 : 농가당 200 ~ 300천원
 - 선도마을 : 마을당 3,000 ~ 5,000천원

■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사업

- 사업량 : 2개지구(양동면 계정, 청운면 갈운지구)
- 사업비 : 2,250백만원
 - 국비 800, 도비 400, 군비 650, 자담 400
- 사업내용 : 축산분뇨퇴비화시설외 38종

■ BMW 퇴비공급

- 공급시기 : 2001. 6월
- 공급량 : 180톤(90농가)
- 공급대상 :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 사업내용 : BMW 퇴비 시험포 설치운영

■ 양평친환경농업인연합회 해외연수

- 연수기간 : 2001. 6. 9 ~ 6. 23 (14박15일)
- 연수국가 : 프랑스, 네덜란드, 이스라엘
- 연수분야 : 친환경관광농업
- 연수인원 : 39명(우리군 13명)
- 소요예산 : 37,700천원
 - 군비 28,100천원, 대산농촌문화재단 9,600천원

■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설

- 사업명 : 양평 친환경농산물 산지가공 유통센터
- 사업비 : 4,066백만원(토지매입비 2,000백만원)
- 운영주체 : 양평농협
- 사업시행자 : 양평군청
- 지원기준 : 국고보조 70%, 지방비부담 30%
(토지매입비는 군비 및 수계기금)

- 지원범위
 - 시설비: 예냉고, 저온저장고, 집하·선별·포장장, 사무실, 회의실
 - 기타 지원장비: 포장기, 컨베어, 수송차량, 지게차
- 2001년도 추진계획
 - 부지매입 및 설계용역
 - 사업비 및 재원
 - 부지매입비: 2,000백만원(군비 500 수계기금 1,500)
 - 시설설치비: 2,066백만원(국비 1,446, 도비 310, 군비 310)
 - 2001년도 예산액: 1,166백만원(국비 816, 도비 175, 군비 175)

■ 한국관광농업학회 세미나 개최

- 일 시: 2001. 8월
- 장 소: 여성회관
- 참석인원: 200명
- 소요예산: 13,000천원
- 내 용: 양평친환경농업과 그린투어리즘 토론

■ 겨울철 그린농업단지 조성(푸른들가꾸기)

- 사업시기: 2001. 10월
- 사업량: 1,000ha
- 지원액: 168,000천원(군비 89, 수계기금 79)

■ 지력증진을 위한 객토사업 지원

- 면 적: 282ha
- 지원액: 282,000천원(군비 109, 수계기금 173)
- 보조비율: 보조 50%, 자담 50%

■ 친환경농업 지도자 육성교육

- 교육일시: 2001. 9월(2박3일)
- 교육장소: 농협 안성교육원
- 교육방법: 위탁 합숙교육
- 교육대상: 친환경농업인연합회
- 교육인원: 240명
- 교육내용: 친환경농업실천요령

■ 친환경농업 국제 심포지엄 개최

- 일 시 : 2001. 10. 23 ~ 10. 24(1박2일)
- 장 소 : 남한강연수원
- 참석대상 : 미국, 캐나다, 유럽, 일본, 중국, 동남아, 전국친환경농업 NGO 단체
- 인 원 : 200명
- 소요예산 : 70,000천원
- 내 용 : 친환경농업 국제세미나, 토론회, 현장견학 등

■ 친환경농업 교육장 설치

- 위 치 : 양평읍 공흥리 48-1(농업기술센터 부지 내)
- 사업기간 : 2000. 10월 ~ 2001. 12월
- 사 업 량 : 1동/3,072㎡(929평)
 - 지하1층, 지상4층(지상3,4층 숙박시설)
 - 당초 건축계획 면적 : 793㎡(지하1층, 지상2층)
- 사 업 비 : 30억원
 - 국비 5억, 도비 2억5천, 군비 22억5천
- 수용인원 : 200명
- 사업내용 : 교육장, 분임토의실, 숙박시설(콘도형), 강사대기실, 관리사무실, 식당 등

■ 메뚜기 잡기 행사

- 메뚜기 서식지 선정 : 23개소/70.1ha
- 단계별 추진계획
 - 1단계 : 집단서식지 조성(2001. 8. 20 ~ 9.30)
 - 2단계 : 집단서식지 관리 및 행사홍보(2001. 9. 1 ~ 9. 30)
 - 3단계 : 메뚜기잡기 행사참여(2001. 10. 1 ~ 10. 30)
- 지 원 액 : 12,000천원

■ 친환경농업 바이오 살균수기 공급

- 공급수량 : 48대(읍·면별 4개소)
- 사 업 비 : 72,000천원
 - 군비 24,000, 수계기금 33,600, 자담 14,400
- 보조비율 : 보조 80%, 자담 20%

■ BMW 플랜트 설치

- 생산량 : 0.5톤/일
- 사업비 : 60,000천원
 - 수계기금 60,000천원
- 보조비율 : 전액보조

■ 친환경농업 액비화시설 지원

- 개소수 : 4개소/10기(개소당 200톤규모)
- 사업비 : 150,000천원
- 사업내용 : 축산분뇨 저장조 설치

■ 오리농법 미생물제제 지원

- 사업량 : 333ha
- 사업비 : 121,000천원
 - 군비 100,000, 수계기금 21,000
- 보조비율 : 전액보조
- 사업내용 : 오리농법 추진중 발생하는 문고병 방제

■ 친환경가축농단지 조성사업

- 사업량 : 2개소
- 사업비 : 500,000천원
- 보조비율 : 국고보조 40%, 국고융자 40%, 자담 20%
- 사업내용 : 축산분뇨 처리시설, 비닐하우스, 저온저장고등

■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

- 사업대상 : 친환경농산물 표시신고 및 품질인증 취득 농가
- 사업량 : 500,000매
- 지원액 : 45,000천원(군비 15,000, 수계기금 30,000)